BNK 경제인사이트

ISSN 2384-3519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NO. 2019-02 (2019년 2월)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정성국 연구위원 (skjung@bnkfg.com)

전국 시공능력 상위 500대 기업 중 동남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총 81개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4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남 35개, 울산 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실적을 보면 건축 부문이 토목의 2배 이상으로 많았다. 건축은 아파트 건설 비중이 70%를 상회하였고 토목의 경우 도로, 택지용지 조성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증가율은 중소형사, 영업이익률은 대형사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 건설업의 지난해 경영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투자심리 위축과 정부 규제로 인해 하방압력이 높을 전망이다. 최근 공공 수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 수주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시공능력 상위 500대 기업 중 동남권은 81개

전국 시공능력 상위 500대 기업(2018년 기준) 중 동남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총 81개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4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남(35개), 울산(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1)]

기업체별 순위를 살펴보면 화력 · 열병합 발전소 등 플랜트 전문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시공평가액 1.4조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아파트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동원개발과 협성건설은 시공평가액 1.0조원으로 각각 2위 및 3위로 선정되었다.

4위에는 도로 및 아파트 등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한진중공업이 이름을 올렸고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시공한 코스닥 상장업체 엘티삼보(舊삼보이앤씨)가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건설 전문기업인 경동건설은 6위, 7위는 삼정이 차지했는데 삼정기업(11위)과 아파트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8위는 충남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도로 · 철도 건설 전문업체인 극동건설, 9위는 도로 · 항만 인프라 외에 주거 · 문화시설 건축 등을 영위하는 대저건설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우방건설산업을 합병한 에스엠상선은 10위로 조사되었다.

한편 13위 동일스위트, 16위 일동은 최근의 주택건설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크게 늘어나며 전국 순위 100대 기업으로 진입하였다.

1) 지난 10년간(2008~18년) 전국시공능력 상위 500대 기업에 포함된 동남권 건설업체는 74개에서 81개로 증가하였다. 부산은 2008년 33개에서 40개로 증가한 가운데 경남 및 울산은 변동이 없었다. 지역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역내지역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동기간 부산의 건설경기가 울산, 경남 대비 양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본사 소재 건설사의 지역내 공사비중을 보면 부산업체는 부산에서 51.6%, 경남업체는 경남에서 56.0%, 울산업체는 울산에서 7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시공능력 상위건설사 현황

(개)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08년	74	33	6	35
2018년	81	40	6	35

동남권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현황

(억원)

순위	기업명	평가액	소재	순위	기업명	평가액	소재
1(24)	두산중공업	14,334	경남	42(286)	광득종합건설	819	경남
2(39)	동원개발	10,333	부산	43(288)	힐탑건설	815	부산
3(40)	협성건설	10,311	부산	44(290)	신우종합토건	809	경남
4(41)	한진중공업	10,253	부산	45(300)	남흥건설	777	부산
5(56)	엘티삼보	5,929	부산	46(302)	관보토건	767	경남
6(63)	경동건설	4,933	부산	47(305)	삼희종합건설	764	부산
7(70)	삼정	4,030	부산	48(306)	현대중공업	763	울산
8(72)	극동건설	3,974	부산	49(307)	가화건설	762	부산
9(78)	대저건설	3,529	경남	50(310)	한반도건설	760	경남
10(79)	에스엠상선	3,497	부산	51(311)	화성종합건설	758	경남
11(80)	삼정기업	3,440	부산	52(316)	세영종합건설	732	울산
12(87)	한림건설	3,239	경남	53(320)	라온산업개발	721	경남
13(88)	동일스위트	3,090	부산	54(327)	삼미건설	708	부산
14(93)	삼한종합건설	2,915	부산	55(330)	신화종합건설	705	부산
15(99)	동일	2,775	부산	56(336)	새미래건설	696	경남
16(100)	일동	2,771	부산	57(340)	창비건설	689	부산
17(108)	동아지질	2,593	부산	58(344)	부명엔지니어링	678	울산
18(117)	에스티엑스건설	2,295	경남	59(345)	일동토건	678	경남
19(123)	협성종합건업	2,095	부산	60(348)	삼정이앤시	663	부산
20(124)	중앙건설	2,093	경남	61(355)	덕진토건	645	경남
21(139)	삼정코아건설	1,780	경남	62(363)	영동	630	부산
22(146)	흥한주택종합건설	1,678	경남	63(373)	정인종합건설	601	경남
23(149)	유림이엔씨	1,612	부산	64(377)	일진종합건설	594	경남
24(150)	대아건설	1,608	경남	65(385)	영일개발	584	경남
25(161)	덕산토건	1,508	경남	66(391)	대창건설	581	경남
26(164)	흥우건설	1,488	부산	67(406)	대호산업	555	경남
27(165)	삼전건설	1,477	경남	68(411)	남명건설	547	경남
28(166)	미진건설	1,465	부산	69(414)	뉴동아건설	544	부산
29(170)	흥한건설	1,405	경남	70(416)	현대로템	543	경남
30(187)	세정건설	1,301	부산	71(418)	경보	540	경남
31(199)	대성문	1,241	부산	72(434)	협성	519	부산
32(202)	동부토건	1,228	부산	73(436)	지원건설	517	부산
33(218)	신태양건설	1,117	부산	74(441)	엠지엘	506	부산
34(224)	대경건설	1,092	경남	75(442)	금아건설	504	울산
35(231)	부강종합건설	1,057	울산	76(458)	우호건설	492	부산
36(235)	대성건설	1,037	부산	77(466)	원광건설	482	경남
37(243)	우람종합건설	989	경남	78(471)	동신	479	부산
38(260)	계담종합건설	940	경남	79(474)	태성건설	475	울산
39(263)	정우개발	930	경남	80(486)	삼우건설	465	경남
40(264)	청산종합건설	929	경남	81(492)	중아건설	460	부산
41(275)	반도종합건설	874	부산				

주 : 1) 2018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전국 상위 500위 이내 대상기업
2) ( )내는 전국 순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공종별 실적은 건축이 토목의 2배 이상
건축의 경우 아파트, 토목은 도로 비중이 가장 높아

동남권 소재 상위 건설사의 2017년 공종별 실적을 보면 건축이 5.7조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토목(2.5조원), 산업 · 환경설비(1.6조원), 조경(0.2조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2)]

건축의 경우 아파트 공사실적이 4.0조원으로 전체의 70.6%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업무시설(4,230억원), 교육사회용(2,965억원), 상가시설(2,154억원) 등으로 나타나 아파트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각 공종별 업체 순위를 보면 아파트 부문은 협성건설(3,686억원)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에스엠상선, 동원개발로 나타났다. 업무시설 부문은 두산중공업, 교육사회용은 한진중공업, 상가시설은 계담종합건설 그리고 광공업용은 부명엔지니어링이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건설사 공종별 실적(건축 부문)

(억원)

아파트			업무시설			교육사회용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1	협성건설	3,686.1	1	두산중공업	529.4	1	한진중공업	546.4
2	에스엠상선	2,686.8	2	한진중공업	454.6	2	경동건설	288.8
3	동원개발	2,312.5	3	대성문	384.9	3	삼희종합건설	155.1
4	삼정	2,215.6	4	삼전건설	240.0	4	신태양건설	153.6
5	두산중공업	1,997.4	5	세정건설	229.9	5	극동건설	149.3
상가시설			**광공업용**			**기타**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1	계담종합건설	551.3	1	부명엔지니어링	739.9	1	한진중공업	955.8
2	흥우건설	376.3	2	세영종합건설	232.3	2	부강종합건설	262.4
3	엠지엘	222.0	3	동신	166.5	3	영동	176.2
4	대아건설	165.8	4	남흥건설	149.8	4	대저건설	167.1
5	한진중공업	134.4	5	일진종합건설	105.6	5	두산중공업	141.7

주 : 공사실적은 2017년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토목은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수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3)]

관련 공종별 실적을 보면 도로가 5,713억원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은 택지용지조성 4,616억원(18.7%)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SOC 분야인 철도는 2,195억원(8.9%), 공항은 2,136억원(8.7%), 항만은 1,441억원(5.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공정별 업체 순위를 보면 도로는 한진중공업(926억원)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두산중공업, 극동건설로 나타났다. 택지용지조성 및 공항 부문은 엘티삼보, 철도는 극동건설, 항만은 부강종합건설이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건설사 공종별 실적 (토목 부문)

(억원)

도로			택지용지조성			철도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1	한진중공업	925.6	1	엘티삼보	795.4	1	극동건설	748.9
2	두산중공업	845.8	2	에스티엑스건설	582.0	2	한진중공업	713.3
3	극동건설	631.4	3	한진중공업	342.7	3	삼전건설	163.1
4	대저건설	378.2	4	남흥건설	209.4	4	대저건설	155.7
5	에스티엑스건설	247.9	5	삼정	196.3	5	에스티엑스건설	75.0
공항			**항만**			**기타**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순위	기업명	공사실적
1	엘티삼보	1,435.8	1	부강종합건설	258.8	1	동원개발	722.3
2	동아지질	517.3	2	두산중공업	250.2	2	협성건설	556.0
3	한진중공업	118.8	3	한진중공업	183.0	3	부강종합건설	433.5
4	경동건설	64.0	4	우람종합건설	158.8	4	한진중공업	379.8
5	–	–	5	흥우건설	105.5	5	두산중공업	286.3

주 : 공사실적은 2017년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건축과 토목을 제외한 주요 공종별 실적의 경우 산업 · 환경설비는 화력 ·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공사실적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1.3조원으로 동 분야 공사금액의 78.5%를 차지하였다. 조경은 동원개발이 가장 공사실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건설산업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매출액 증가율은 중소형사, 영업이익률은 대형사가 높아

동남권 시공능력상위 건설사를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시 대형건설사(2015~17년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상)는 19개, 중소형건설사는 51개로 조사되었다.[4] 지역별로 보면 대형사는 부산에 14개, 경남에 5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부산에 24개, 경남은 23개, 울산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건설사의 총 매출액은 2017년 8.8조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다. 중소형사가 22.9%로 대형사(15.8%)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울산 중소형사의 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3.4%, 13.2%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경남의 대형사는 2017년 매출액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 부진한 상황이다.

동남권 건설사 매출액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동남권		66,391 (1.8%)	74,504 (12.2%)	88,050 (18.2%)
	대형	43,566 (△3.2%)	49,570 (13.8%)	57,398 (15.8%)
	중소형	22,824 (12.8%)	24,934 (9.2%)	30,652 (22.9%)
부산		45,880 (6.0%)	55,944 (21.9%)	63,398 (13.3%)
	대형	34,417 (4.5%)	42,778 (24.3%)	48,500 (13.4%)
	중소형	11,463 (10.5%)	13,166 (14.9%)	14,898 (13.2%)
경남		18,876 (△9.2%)	17,006 (△9.9%)	21,559 (26.8%)
	대형	9,150 (△24.1%)	6,792 (△25.8%)	8,898 (31.0%)
	중소형	9,726 (11.5%)	10,215 (5.0%)	12,660 (23.9%)
울산	중소형	1,635 (44.7%)	1,553 (△5.0%)	3,093 (99.2%)

주 : 상위 70개사 기준,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4) 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을 위해 총 81개 건설사 중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에스엠상선, 현대중공업 등 건설사업 비중이 낮은 기업, 회생절차 개시 기업, 재무자료 미입수 기업 등 11개사는 제외

영업이익률은 2017년 14.4%로 나타났는데 대형사(17.6%)가 중소형사(8.3%) 대비 높은 모습이다.[5] 부산의 대형사 영업이익률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형사(10.0%)도 울산 및 경남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대형사 및 중소형사 영업이익률은 전년에 이어 모두 상승한 반면 울산은 3.3%에 그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동남권 건설사 영업이익률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동남권		9.4	13.9	14.4
	대형	10.7	17.1	17.6
	중소형	6.7	7.6	8.3
부산		10.9	16.5	17.0
	대형	11.8	18.7	19.2
	중소형	8.4	9.4	10.0
경남		5.7	6.3	8.2
	대형	6.9	7.3	9.1
	중소형	4.7	5.7	7.6
울산	중소형	6.8	5.5	3.3

주 : 상위 70개사 기준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2018년 동남권 건설사의 경영실적은 전년대비 부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남권 소재 상위 건설사와 비슷한 규모(시공능력 1조원 미만)의 상장기업 실적을 보면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이 2018년 중 3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상장 건설사 경영실적

(%)

구분	2018.1분기	2018.2분기	2018.3분기
매출액 증가율	△4.0%	△5.2%	△3.5%
영업이익률	△21.5%	△3.2%	△12.4%

주 : 1)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시공능력 1조원 미만인 건설업체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대한건설협회의 2017년 민간백서에 따르면 전국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평균 5.9%로 나타났다.

동남권 건설경기, 하방압력 높아질 전망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격상승세를 이끌었던 신규 아파트(준공연도 5년 이하) 가격도 크게 하락하여 건설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보면 부산은 2018.12월 전년동기대비 0.9%로 낮아졌으며 울산은 2017.12월, 경남은 2018.7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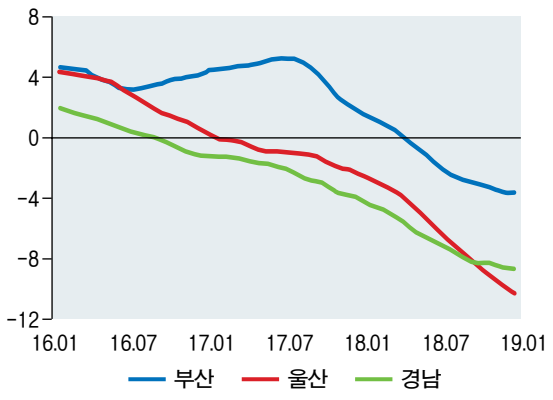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주택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흐름이다. 동남권 시공능력 상위건설사 중 29위 흥한건설이 2018.12월, 56위 새미래건설이 2019.2월에 회생절차 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중견업체까지 경기부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는 부산의 조정대상지역(7개) 중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를 제외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하였다.[6] 그러나 아직 해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등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차가운 모습이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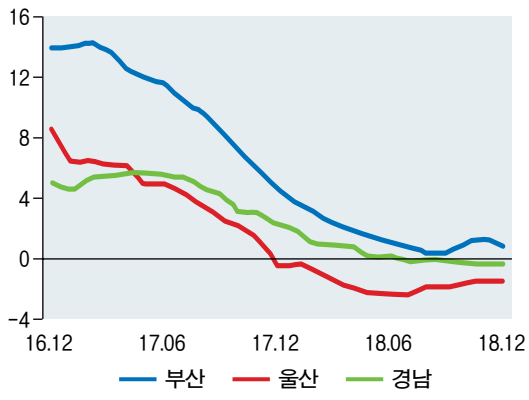
(%)

지역별 매매가격 변화



주 :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감정원

신규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



주 : 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현재시점 기준(재건축 포함)
자료 : 부동산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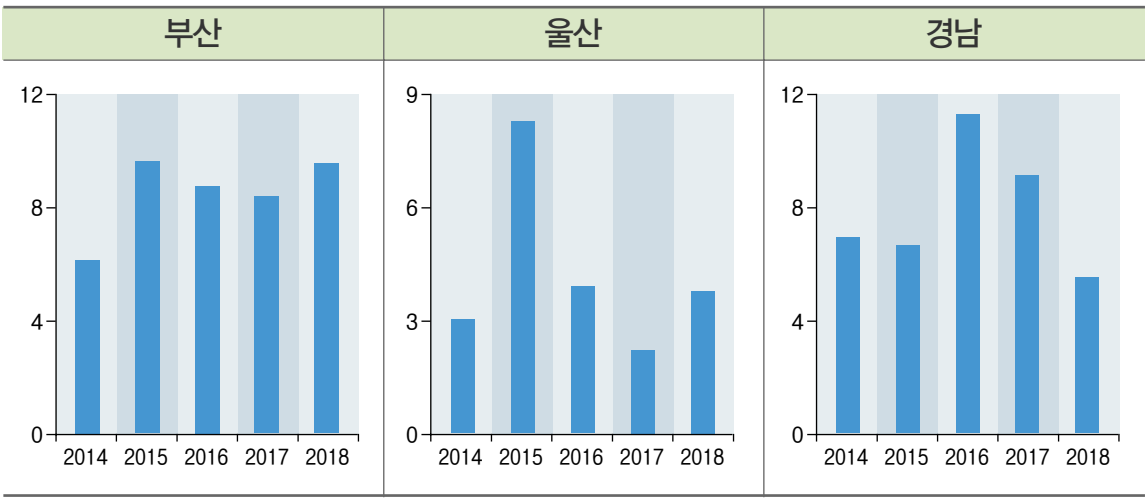
6)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하며 준공물량도 적은 해운대 · 수영구는 해제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2.28)

공급물량의 부담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상당하다. 그동안 아파트는 동남권 건설사 공사실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청약시장 호황에 힘입어 많은 물량이 공급되었다.[7] 금년에도 지난해(3만7천호) 보다 많은 6만7천호의 아파트 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공급물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8] 건설사 입장에서 체감하는 입주경기도 침체되는 등 투자심리 위축과 정부 규제로 인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9]

건설수주액도 부진한 상황이다. 동남권 전체 건설수주액은 2018년 중 전년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및 울산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경남은 2016년(11.4조원)의 절반 수준인 5.5조원에 그쳐 큰 감소를 보였다. 지역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건설수주액

(조원)



자료 : 통계청

7) 동남권 지역별 아파트 공급(예정)물량

(만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부산	2.2	1.5	2.0	2.4	2.6
울산	0.9	0.3	0.9	0.9	1.1
경남	2.2	2.1	4.1	3.5	3.8

8) 지역별 분양계획을 보면 부산은 2002년 이후 최대인 3만7천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울산은 전년대비 8천호가 증가한 9천호, 경남의 경우 창원(1만호), 양산(6천호)을 중심으로 2만호를 분양할 계획

9) 주택산업연구원의 2019.1월 지역별 입주경기실사지수를 보면 동남권의 경우 부산(65.5), 울산(65.0), 경남(66.6)으로 수도권(73.0)대비 낮음

동남권 SOC 사업에 지역업체 소외되지 않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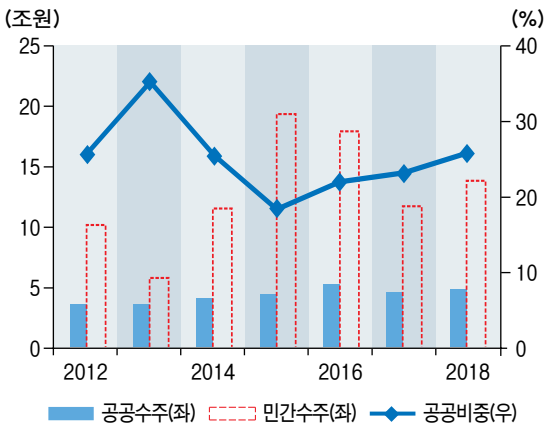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 비중은 최근 3년간 상승하여 2018년 26.0%까지 높아졌으나 평균 5조원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 수주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핵심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남권에서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0조원), 울산외곽순환도로(1.2조원), 남부내륙철도(4.7조원)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철도 등 핵심 공공인프라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발전 동력 확보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대형 SOC사업은 자본 및 기술력이 우수한 메이저 건설사 위주로 수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침체된 동남권 건설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향토기업이 관련 사업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동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 및 주요 SOC사업

공공부문 건설수주



주요 SOC사업

구분	주요 내용
부산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0조원) : 민자적격성 조사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 송정동~김해 불암동 14km
울산	■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울산시 두서연~강동동 25km ■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300병상, 16개 진료과
경남	■ 남부내륙철도(4.7조원) : 김천~거제 172km

주 : 2018년 수주액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기획재정부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2018.07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보도자료", 2019.01

부동산 114, www.r114.com

대한건설협회, "2017년 민간건설백서", 2018.12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주택산업연구원, www.khi.re.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감정원, www.kab.co.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년 건설경기 전망", 2018.11

한국기업데이터, www.cretop.com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 G2경제 향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BNK BNK금융지주

제2019-02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 행 인 김지완
편 집 인 김성주
발 행 처 BNK금융지주(www.bnkfg.com)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 락 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 쇄 애드벤처
2019년 2월 28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